

#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및 상담의 이해

LESSON 1.

다문화사회의 의미

LESSON 2.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 1

## 다문화사회의 의미

### 1) 다문화사회의 정의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다문화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전적 정의로는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Petit Robert 사전, 마르티니엘로, 1997)’ 또는 ‘이질적인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다음국어사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하자면,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적인 사회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은 오히려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류는 과거부터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주를 해 왔고, 특히 20세기 들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주가 매우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인류의 국제적 이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우리 사회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포함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의 다문화현상

#### (1) 한국 다문화사회 형성의 배경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언제부터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오래 전부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사례가 있으나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집단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초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 국제결혼의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한국의 다문화 현황

첫째, 한국사회의 이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이주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현재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186만 1,0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되는데(행정안전부, 2018), 이는 아래의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연도별 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 20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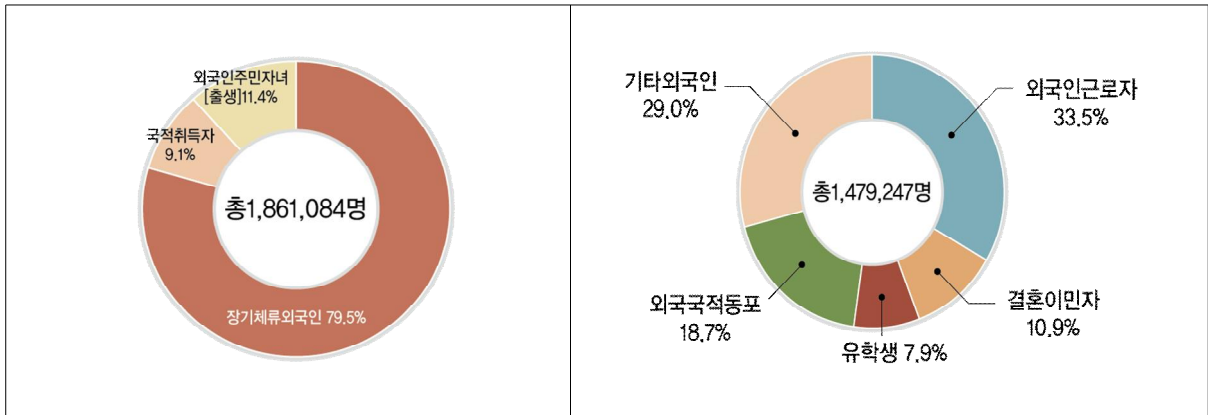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점차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저출산 사회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에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비중이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대한민국미래보고서, 2015).

둘째, 한국사회의 다문화집단 유형이 다양해지기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집단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외국인주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장기체류외국인으로, 전체의 79.5%이고(이 집단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들이 모두 포함됩니다[그림 2]),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11.4%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입니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외국인근로자로 전체의 33.5%이고, 결혼이민자는 10.9%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대상자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자녀보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현황 조사 결과(2017) !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현황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유형별 현황

### (3) 다문화사회의 과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문화사회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자신과 다른 것, 생소한 것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집단이 주류집단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과 주류집단 전체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다문화집단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다문화사회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 1)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다문화사회란 「한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향유함으로써 문화적으로는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이 사회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간 갈등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집단간 갈등을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입니다.

먼저,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과잉일반화된 신념’<sup>1)</sup>으로, 어떤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사람, 일본사람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해당집단 사람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할 때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집단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그 집단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관념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견(prejudice)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편견(prejudice)이란, ‘특정집단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감정’<sup>2)</sup>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경우 소수집단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이고,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미국에서 흑인에 대해 폭행을 하는 등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KKK단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은 단순히 고정관념과 같이 머릿속에서 그 집단에 대한 특징으로 개념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태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행동으로 표출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데, 고정관념과 편견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차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discrimination)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sup>3)</sup>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 학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sup>4)</sup> 등은 모두 차별적 행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인종적 측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 연령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매우 밀접하고도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게

1) Cardwell, Mike (1999). Dictionary of psychology. Chicago Fitzroy Dearborn.

2) Wedgwood, Hensleigh (1855). "English Etymologies".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8): 113-116.

3) "What is Discrimination?".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8-04-15. Retrieved 2018-04-15.

4)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정권에 의하여 1948년에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

됩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라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러한 편견에 근거하여 차별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문화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 심한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간에 긴장이 생성되어 집단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심리적으로 결코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편안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통한 긴장감 해소는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의 노력

앞에서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차별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운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이고 다른 하나는 ‘친(親) 다문화적 학교환경조성’ 입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학생들의 성장지원을 통한 주류집단과의 격차해소입니다. 이는 특히 교육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적 증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OECD(2015) 조사에 따르면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이민자인 경우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수준이 주류집단에 비해 낮고, 사회자본의 한계를 지님으로 인하여 결국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주의 배경을 지닌 것만으로도 교육 및 진로에서 주류집단과 격차를 유발하고, 그 결과 직업 등 노동시장에서도 불리하게 되어 결국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다문화집단의 청소년들이 대거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과제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이들이 지닌 주류집단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인 ‘친(親) 다문화적 학교환경조성’은 학교 구성원 전체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인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반면견, 반차별의 가치를 교육시킴으로써 결국 국민 전체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른 문화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반면견, 반차별, 인권존중의 시각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집단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차원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은 향후 한국사회의 성숙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중언어강사가 자기 나라의 의상, 노래, 인사말, 놀이, 음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나아가 반면견, 반차별의 주제를 다소 약합니다. 학교 다문화이해교육은 타인에 대한 인권존중, 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문제라는 인식 등을 다루어주는 수준까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무런 인식 없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다문화가정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자신도 그러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 등을 가질 수 있는 민감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